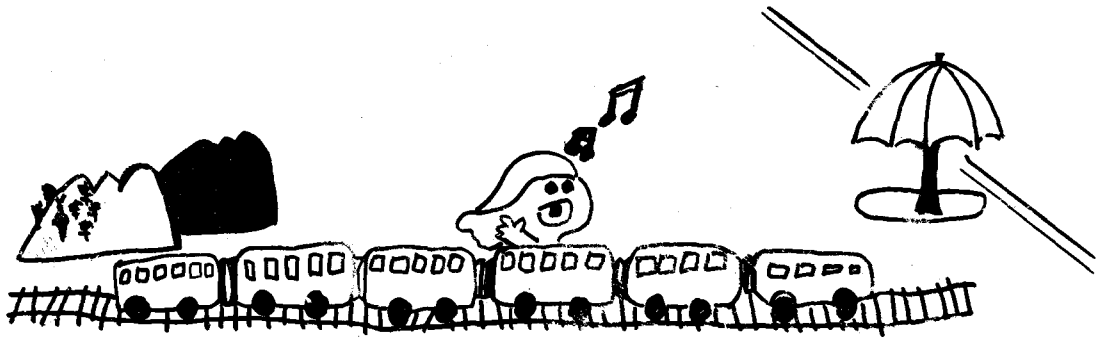


닭고기 바캉스

김 정 숙
(서울시·잠실동)



여름 어떤 지난해의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그러니까 친구 셋(명숙, 태숙, 정숙) 이서 휴가차 피서를 떠났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떨어질 줄 모르고 붙어다니는 셋짜이라고나 할까 이름자 끝이 숙자 돌림이어서 시작된 우정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다. 공기 탁한 서울을 떠나 잠시 자연속에서 지낼까 하고 1개월 전부터 이궁리 저궁리 해가며 계획을 세우고 급기야는 위험천만이라는 캠핑도구를 짊어지고 변산반도쪽으로 달렸던 것이다.

들뜬 기분을 가라앉힐 겨를도 없이 목포행 열차는 달렸고 옆에 있는 정숙이는 연실 회쭈쭈쪽거리며 오징어를 쪽쪽 찢어 실새 없이 먹었다. “애, 너는 먹으러 왔니?” 하고 태숙이가 벗은 모자로 얼굴을 부치며 말을 건넸다. “야, 명숙아 너도 먹어봐라 오징어 처럼 살이 짹짹떨테니, 뭐니

뭐니해도 집떠나서는 먹는게 남는거야..” “그러면서 매일 살빼다고 난리는 왜 쳐?” “하하하” 우리 셋은 기차가 떠나갈 정도로 웃으며 기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기차는 끝없이 달렸다. 실컷 떠들던 정숙이가 1차로로 잠에 빠졌고 이어 대전을 지날때쯤 태숙이도 잠들어 버렸다.

자리가 조용해지자 나만의 여행이 된듯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러면서 3일간의 일정에 대해 꼼꼼히 생각을 하다가 나도 옆친구들이 떠다니는 허공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왔는지 깜짝놀라 깨어보니 도착역에서 얼마남지 않았다. 급히 친구를 깨우고 내릴 준비를 서두르고 한역한역 확인을 하고 드디어 하차를 하고 변산반도로 떠나는 버스를 탔다.

“애들아, 우리 도착하자마자 점심은 무엇을 먹을래?” 정

숙이였다. “또 시작이군!” 바다가 서서히 보이자 내가 정말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해수욕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텐트를 세울 공간이 전혀 없었다. 점점 피로해지기 시작했다.

제일먼저 정숙이가 “우리 점심먹자” 실은 나도 배가 고팠다. 그런데 어디에 짐을 풀어야지 점심을 먹을게 아닌가. 한두곳 장소가 있긴 했지만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틈이라 할 수 없고, 발만 아프게 돌아다니다 우리는 도착지 입구로 다시와서 주저 앉았다. 이렇게 피서라니 해도 너무했다 싶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태숙이의 제안으로 라면을 샀다. 그리고 다 익기도 전에 주르륵 먹고 다시 장소를 옮겨 내변산 박천내로 향했다. 산중계곡이라 그런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텐트를 칠 자리도 많았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가족끼리 온듯한 텐트옆에 안착을 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우리들인지라 짐을 풀고 밥을 지어먹고나자 해가져 어두워졌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들리기는 처음이었다고나할까 작은 소리로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실로 피서온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마침 옆집(텐트)과 친숙해져 가지고간 과일과 과자를 꺼내놓고 서로의 고향을 물어가며 시간을 보냈다. 부산쪽에서 왔다는 그 가족은 아예 여름이면 해운대는 갈 생각조차 안하고 일찌감치 피서계획을 덜알려진 계곡을 찾는다고 했다. 아저씨가 어디서 준비를 했는지 장작개피를 모아놓고 불을 지피더니 무엇인가 굵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닭고기였다. 계곡입구 가게에서 4,000원 주고 샀다는 닭의 크기는 지금이서 말이지 시내 시장에서는 2,000원짜리만했다. 평소 닭고기라면 캔터키 밖에 먹지 않는 나였지만 계곡에서 그것도 한뼘중에 대하니 조르르 침이 맺혔다. 그 아저씨는 평소실력이라며 철사에 꼬아 각종양념(고추장, 기름, 조미료, 소금, 마늘다진 것)을 바르고 장작 불에 닭을 구웠다.

우리는 너무 신기하고 처음보는 일이라 시간가는줄 모르고 고기가 어서 익어라 하며 기다렸다. 냄새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자 거리감이 있던 닭고기의 이미지가 금새 사라졌다. 손으로 푹푹질라 건네주는 닭고기를 셋은 먹으며 “감사합니다”가 동시에 나오게 인사를 했다. 참으로 별난 맛이었다.

“명숙아? 우리도 내년에는 피서를 계곡으로가 닭 바베큐 해먹자, 괜히 다른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애. 그러면 닭을 아예 바캉스 품목에 넣어야 겠다” 하고 태숙이가 맛장구를 쳐 우리 셋은 계곡이 울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

고향에 와서 쓴 詩

안 의 선
(시인·아동문학가)

모락산
밤이면 일어선다.

모락산
새소리 이끌고
바람소리 이끌고
짐승처럼 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온몸으로 부딪쳐 찢긴 상처 이끌고
플빛 심상한
숲을 헤쳐 내일 꿈을 주으며

모락산
많은 설움이 모여서 산다.

그리고
밤마다
کمکم하게 운다.

◆ 약 력 ◆

- ▽ 제 1회 英陵全國白日場 입상
- ▽ 제 4회 中央時調白日場 次下
- ▽ 제 2회 새싹시조문학상 받음
- ▽ 〈시조문학〉 〈죽순문학〉 〈소년〉 추천완료
- ▽ 현 : 한국현대시조문학회 연구위원
현대시조 동인회 간사